

가정예배 안내서

5

1995

충현의 만나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5

1995

가정에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도서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5년 5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데살로니가전후서 서론

데살로니가교회는 바울의 2차전도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이다. 이때는 주후 53년경이다. 이때 로마를 다스리는 자는 네로황제였다.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다.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주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주의 재림에 죽은 자가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통하여 주의 재림은 주의 말씀이 계시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염든 두 서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증거하고 있다.

본 서신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에든지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일어나 기다려야 한다.

1

(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송 / 205장 본문 / 살전 1:1-10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1:2)

바울 사도의 서신들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항상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감사의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덕행과 미덕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로 인하여 권면을 받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살전 4:1, 5: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현상적인 면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큰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볼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은 일련의 열매들로 인한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의 훌륭한 생활로 인하여 감사받을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 자랑이나 자신의 만족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과 수고가 있는 교회요, 인내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한결을 더 나아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을 받고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참으로 사랑과 수고와 인내의 마음이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교훈받아 항상 감사하며 믿음의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 가정, 개인이 됩시다.

▶ 기도 / 믿음의 좋은 소문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합니다. 아멘.

7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2:4)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청지기란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주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의 일을 관리하였으며 자기 주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주인의 모든 물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청지기들은 어느날 자기의 직분에 관하여 계산해야만 합니다. 불충성한 것이 나타나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보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묻어두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번식시켜 영적인 이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책임은 복음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보호하는 것이요, 또한 복음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수호한다 해도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충성은 청지기로서 소유할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았든지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충성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됩시다. 충성된 청지기는 사람들의 눈에는 인기가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노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됩시다.

▶ 기도 /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오늘을 살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에 주의 권능을 덧입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합니다. 아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2:7)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새롭게 믿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그리스도들을 인내로 대하였습니다. 마치 젖먹이를 양육하는 유모의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모란 젖을 먹여 키우는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젖은 생명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먹고 그것을 젖먹이의 젖으로 바꾸어 내놓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며 그 영향을 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젖먹는 자녀는 어머니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킴으로 영적인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그릇된 것들을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믿는 자들을 흠없는 자녀들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즉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서서히 성장합니다. 자녀들은 자라는 동안 모든 고통을 겪으며 성숙해감에 따라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자신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양분을 공급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돌보는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잘 돌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 새로운 힘과 권능있는 말씀의 영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2:13)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주님은 잘못 듣는 일에 대하여 반복하여 사람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귀있는 자들은 들으지어다(마 13:9).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다른 말로 하면 '들은 말을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듣는데도 우리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막 4:24)고 경고하셨습니다. 영국의 성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벌떡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하시도록 말긴다고 합니다. 마지막 경고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눅 8:18)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듣는 일에 대하여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 우리는 전념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념해서 듣지 않으면 어느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데 기근이 들어 배가 고프게 될 것입니다(암 8:11).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사용해야 하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여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 속사람의 일부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묵상은 육체의 생명에 있어서 소화작용이 필수적인 것처럼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만일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드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충현의 성도들이 언제나 동일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금) 성령의 열매

찬송 / 169장 본문 / 갈 5:22-26

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5:22, 23)

사람은 무엇을 좇아 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결정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좇아 살면 육체의 열매를, 성령을 좇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서로 상반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크게 열다섯 가지입니다. 즉,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서는 안 될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크게 아홉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사랑, 희락, 화평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오래참음, 자비(친절), 양선(선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만큼 자라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 안에서 걸어갈 때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옛 성품을 잡초 제거하듯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서 나아갈 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나무들입니다.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꼭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 기도 /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신앙 안에서 양육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2:19)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여러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하였지만 사단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의 복음전파에 대하여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의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갈등과 시련의 시대에 살면서 사물을 멀리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현재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살았습니다. 그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그의 충성된 사역에 대해 보상에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됩시다. 충성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돌려드릴 면류관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3:2)

어린 신자들을 주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어야만 이 다른 이들은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디모데는 교회가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돕기 위해서 보내진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고전 16:10-11, 빌 2:19-23).

디모데는 참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굳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서슴없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다른 성경에서 동역자, 섬기는 자, 집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위하여 일하며 섬기는 자를 포괄적으로 함축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당신의 일꾼, 당신의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교회에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참된 인도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로서 일꾼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 기도 /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봉사함으로 주 안에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3:7)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한 교회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믿음의 격려를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산다는 소식을 듣자 바울에게는 충만한 열정과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존 뉴우먼이 말했듯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가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는 연구를 통해 지식이 축적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정치가는 열띤 논쟁으로 자신의 주장이 승리했을 때 행복합니다. 상인은 이익을 남겼을 때 즐거워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회심한 형제들을 볼 때, 그리고 그들이 불굴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무한한 기쁨을 얻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로 말미암아 바울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물결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의 소유자에게는 결코 기쁨의 샘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감사로 터져 나오고, 또 그들의 믿음을 더욱 키워 주려는 열정적인 기도로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믿음이 어울어져 빛을 발할 때 우리 자신이 기뻐할 수 있고 남에게 참된 기쁨과 격려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 기도 / 주여, 우리로 남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을 안겨주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주 안에서 효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3:11)

가장 바람직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거나 애매한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둘째로 간구할 폭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관심의 세계도 폭이 넓어져갑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이런 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혼을 향한 분명하고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영혼의 영구한 유익을 위하여 입체적인 차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라고 간구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믿음으로 연합된 기도자의 고결한 영성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후서에는 이와 유사한 구절이 26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의 형제들도 서로의 만남을 그렇게 갈망했으나 지금까지는 바울이 형제들에게 가는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방문을 막는 사탄의 모든 방해공작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들이 사랑 가운데서 견고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잊지 않고 간구하였습니다. ‘흠이 없는 성결함!’ 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고도 고상한 기도제목입니까? 바울의 이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았으나 5년 후에 그는 마게도냐를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 되도록 응답하시며 우리의 구체적 삶의 여정을 지도하십니다.

▶ 기도 /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소서. 찬양대원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4:3)

우리는 주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을 모를 때나 제자가 스승의 뜻을 모를 때, 또는 신하가 왕의 뜻을 몰랐을 때 매우 큰 곤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 그 영혼은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그의 발걸음은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삶의 현장에서 특정한 문제에 관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좀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절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플라벤이란 사람은 "육신에 심장이 있듯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리고 심장에 건강함이 있어야 하듯 영혼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대낮의 햇빛보다 더 밝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결코 하나님만 가지시는 속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과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지는 신앙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도 성결성, 곧 거룩성입니다. 신자도 거룩함을 입은 무리이기에 성도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온전히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뜻도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을 향하여 재정비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도 구별되게 살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4:10)

리니우스라는 사람은 모든 생명체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피라밋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모든 식물계 위에 동물계가 있으며, 그 맨 꼭 대기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인 인간이 있는데, 이 모든 살아 있는 생물의 특징은 성장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자연세계 뿐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육체적 성장과 영적 성장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에는 멈추어야 할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륜이 더할수록 영적으로는 더욱 새로워지고 끝없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된 그 순간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 성숙해지기 위한 위대한 지평을 여는 때입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의 어느 한 면으로만 쏠리면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모습의 전부를 본받으려 힘써야 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안에서 모든 은사들이 마치 천사의 수금에 있는 현들과 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바울도 “더 많이 하라”고 형제들에게 권합니다. 형제사랑하기를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에 만족하거나 우쭐대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는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하되 더 근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진리 가운데서 타인을 더 많이 사랑하고 스스로는 더 많이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생명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 기도 / 우리의 속사람이 균형있게 성숙해지도록 은혜를 주소서. 구역원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더하셔서 교회가 배가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 246장 본문 / 딤편 3:14-16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3:15)

우리가 오늘의 교회를 살펴볼 때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당, 혹은 예배당일 뿐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으로 부터 부름을 받은 선택된 무리들의 모임' 을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교회를 '카할' (kahal) 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불러모으다' 란 말입니다. 이것을 '총회' 혹은 '하나님의 회' 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ekklesia)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즉 '에크' (ek:…로부터)란 단어와 '클레시아' (klesia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뜻은 '일반 대중으로 부터 주님께로 나아와 공적으로 그를 고백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무리들' 을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딤편 3:15) 로서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외면적 조직에 두고 있으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회중, 즉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성화되어 인치심을 받은 신자들의 회중을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가 교회임을 인지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도 / 교회의 각 지체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이루어나 가게 하소서. 남녀전도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4:18)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문제를 교훈하던 사도 바울은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 깊은 자리에는 누구든지 죽음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근원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슬픔은 믿음과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는 잠자는 성도에 관한 분명하고도 감격적인 지식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반드시 무덤 속에서 깨어나서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대열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삶과 그 속에 포함된 모든 것들, 곧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의지들이 죽음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는 선과 악의 전투가 있고 빛과 어둠의 세력이 있으며 곳곳에 유혹과 시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요 성직자인 단너라는 사람은 그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애 중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거나 선을 행하지 않고 보내버린 내 잃어버린 삶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며 죽음에 대하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공중에서 대면할 그 날까지 이 신선한 소망을 잃지 않고 위로를 나누어야 합니다.

▶ 기도 / 이 험한 세상에서 소망 중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삶의 의미를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5:8)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가장 현대적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또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양있고 배운 사람일수록 회의적(懷疑的)으로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에 대하여는 구약의 예언자들도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이 날은 갑자기 이르러 절단코 피하지 못하게 올 것입니다. 이 불경건한 세상이 헛된 평안과 허망한 안전 가운데서 잠자고 있을 그런 때에 그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히, 그리고 홀연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의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으며 그 날을 위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이외에는 쓸 것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 이상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주의 날을 소망 중 바라보는 경건한 성도에게는 그 날이 당황스럽게 홀연히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를 확실히 알 수는 없어도 그 때문에 더욱 깨어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소망있는 성도에게는 그 날은 환희와 완성과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 기도 / 빛의 자녀로서 주의 날을 깨어 예비하고 간절히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남북이 피흘림 없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 속히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5:18)

하나님의 뜻에는 결정적 의지와 소원적 의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적 의지란 예정, 섭리, 능력, 지혜, 권능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불가항력적 의지로서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인 의지입니다. 소원적 의지란 인격적이고 개인적이며 선택적이고 조건적인 의지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저런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습니다. 이것이 소원적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결정적 의지인 것입니다. 기쁨의 무조건성, 기도의 절대 필요성, 감사의 무한성 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은혜들을 알고, 감사로 표현하며,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감사없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쁨없는 감사란 존재치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강력한 주권적 의지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불평하고 나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학교를 축복하시고 교사들에게 더욱 충성할 수 있는 복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⁷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5:24)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모든 이에게 본이 되며, 누구에게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과과는 반대되는 인간의 모습과 죄된 성품이 드러나곤 합니다. 생각하기도 슬픈 일이지만 원망,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함, 무관심과 나태함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외침처럼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곤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참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도, 철저한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가버립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걷기를 처음 배울 때 언제나 부모가 그를 지켜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그는 이 반복되는 일에 싫증을 내지 않으십니다. 그는 언제까지고 우리가 온전히 일어설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선택하신 자녀들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실수를 감싸 안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애씀을 통하여 우리는 느리지만 꾸준히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 1:6).

▶ 기도 / 항상 미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역경 중에서도 기뻐하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을 주관하시고 현지인 선교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 (1:6,7)

사람에게는 머나먼 희망사항이 바로 공의의 구현입니다. 참된 공의의 사회나 국가를 누구나 회구하지만 언제나 인간의 제도는 완벽한 공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재와 학살과 오판 등과 같은 현실 앞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가 실로 존재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며, 그는 왜 이것을 막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는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다만 그의 공의는 인간의 요구나 외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원하신 경륜과 의지로 인해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간과 방법으로 구현될 뿐입니다. 그는 악과 악한 사람을 보응하시고 박해받고 선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꼭 보상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베델은 자신의 동상을 만들면서 그 원발이 성경책을 밟는 모양으로 만들 정도로 하나님과 교회에 반감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죽은 후에 뱀이 나를 둘러쌀 것이다.’ 베델의 관을 하관할 때 거기에 큰 뱀 한 마리가 있으므로 그것을 꺼내 죽였답니다. 그후 그 무덤에만 유독히 뱀이 계속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상에도 다섯 마리의 뱀들이 영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는 공의를 구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속하고 불의한 세상과 일들 중에서도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 기도 / 살아계셔서 공의를 구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의와 용기 있게 싸우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을 통해 독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2:3)

데살로니가전서 5:1-11의 내용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핍박을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여기면서 극단적인 현실 도피적 경향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기록하여 다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림이 예기치 못한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몇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예비할 시간이 있으므로 공포나 현실 도피, 동요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 이 악의 세력은 먼저 배도케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행동이 바로 배도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어느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악도 육신을 입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짓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는 능력있는 기적을 수행함으로 사람들이 그 초자연적인 능력에 굴복하면서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자의 속임과 거짓으로 멸망하게 될 사람들은 미혹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무관심하였고 냉담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 두려운 종말의 현상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자의 총만이니라.”(1:23)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며, 그 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교회는 통일성을 가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가집니다. 또한 교회의 교리나 예배의식이나 행정조직 등에서도 통일성을 가집니다. 둘째, 교회는 거룩성을 가집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구습을 따르지 않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면에서도 거룩합니다. 셋째, 교회는 사도성을 가집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난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한 교회는 사도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교회는 제한된 의미에서 무오류성을 가집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지상교회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단지 지상의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그것을 순종할 때만 오류가 없습니다. 다섯째, 교회는 생명성을 가집니다. 교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생명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믿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와 같은 속성들이 예수사랑 큰 잔치를 앞에 두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전도의 생명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삽시다.

▶ 기도 / 교회의 속성을 바르게 간직하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2:16,17)

우리는 불안하고 견고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행복과 삶을 채우려 합니다. 혹은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근검절약하고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노력들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불완전함을 곧 체험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하고 참된 기쁨과 평화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스패포드 씨는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두 자녀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이며 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무디교회의 헌신적인 집사였으며 훌륭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의 시카고의 대화재 사건으로 그들의 집은 전소되었고, 사업에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그의 부인은 건강이 심히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무디교회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는 재기를 위해, 또한 교회의 재건을 위해 가족을 유럽의 친척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격으로 그들을 태운 배는 대서양에서 침몰하여 겨우 부인만 구조되고 자녀들은 심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의 절망과 비통함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 중에서 그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470장)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슬픈 가슴을 속속들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왜 고난 받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까지 분명한 사실은 그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영혼의 안위와 평화를 주십니다.

▶ 기도 / 내 영혼이 어떤 환경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현지인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모든 여건을 주장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 』(3:1-5)

본문은 성도가 불신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참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를 방해하는 적대세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죽음의 위협과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어두움의 세력은 빛이 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위로가 되며, 환란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세상에서 오해받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누가 옳았느냐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며, 나아가 자신이 참으므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인내를 닮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항상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태 선교사(중국)의 사역으로 북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3:10)

본문은 성도가 게으르지 않고 규모있게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곧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지나친 생각이 문제가 되는 법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세만 지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여서 자신의 생활을 규모있게 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문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곧 종말이 오기 때문에 직장에 나갈 필요도 없다면서 가정까지 등한시 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지나칠 정도로 기도원이나 집회에 찾다다니면서 생계유지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동일합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도움만 기다린다면 이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모두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하겠습니까.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종말 운운하며 동요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늘 부지런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회교권 선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잘 해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3:16)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규모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깨우치면서도 물들까 조심하라는 말씀과 함께 평강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는 인사말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세상 종말이 온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동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강이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믿음의 침착함입니다.

이런 평강을 가지신 주님께서 먼저 고난의 상황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성도와 제자들에게도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으며, 부활 후에도 “평안하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이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불안은 평강의 상실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평강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에도 친히 함께 해주심을 굳게 믿고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늘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불안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안식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일본)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자기 때에 자기의 말쑼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 ” (1:3)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가에 관하여 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영생을 전도의 방법으로 알리셨고, 이후 제자들도 전도를 통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날 마스크와 사회 전반에 걸쳐 기독교나 성경에 관한 가르침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전도하는 것을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효과있게 그리고 저절로 복음이 증거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미려한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즉 영생을 얻었다고 확인하는 사람이 그 확신을 당당하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영생의 소망은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의 확신이 크면 클수록 더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행동으로, 분명한 언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축복입니다. 우리가정도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됩시다.

▶ 기도 / 전도를 부담스러워 하기보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소서. 이기성, 박정아 평신도 선교사(호주)가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 』(1:7)

장로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합니다. 즉 자신의 경건성은 물론 가정에서도 모범된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역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독은 지역교회를 맡아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오늘날 목회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모든 점에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으며, 그래서 그 당시 감독은 성도들 중에 인정받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장로나 감독의 자격은 어떤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격과 같은 것입니다. 위에 열거된 내용들은 잘 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보다는 내면의 성품과 인격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즉 신앙이란, 인격과 삶의 문제이지 더 잘할 수 있는 효율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잘할 수 있다는 재능의 발휘보다 충성스러운 성도의 경건함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이런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모범적 인물들이 많아지도록 간구합니다.

▶ 기도 / 모범적인 신앙과 경건으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김형선, 한영자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의 사역이 풍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⁷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1:10)

이 세상에는 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파도 다르고 교리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첫째, 참된 교회는 말씀을 올바로 전파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졌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시금석입니다. 둘째, 참된 교회는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두 가지만 시행하셨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그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목사에 의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합당한 대상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셋째, 참된 교회는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합니다. 한국 교회는 권징이 거의 없는 실정이나, 지상의 교회는 교회의 도덕적, 신령적 순결을 위해서 반드시 권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권징에는 권면, 수찬정지(성찬정지), 출교 등이 있는데, 이는 성도의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교회를 죄악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방부제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딤후 1:3)로서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가 교회임을 인지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답게, 그리스도의 몸 다듬게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도 /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성례와 권징을 바르게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 선교사(일본)에게 구체적 열매를 주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1:10)

본문은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주의깊게 경계하여야 할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진리를 거스리며, 행동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물리쳐야 합니다. 디도가 있었던 그레데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열심히 일하는 모든 지역에서 거짓 선생들의 활동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여야 할 사명 중의 하나가 바로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 나가는 일입니다.

거짓된 선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속여서 진리로 부터 돌아서게 하여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은 할례당에 의하여 저질러졌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 예수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온전하시고 충분하신 주님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크게 책망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인들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힘쓸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 기도 /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는 형제자매들을 구하여 주소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가 진행하는 현지 어린이 선교가 아프리카 복음화의 초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2:1)

본문은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나이 드신 남자와 여자, 젊은 남자와 여자 등의 여러 계층의 교인들과 교사와 목회자들에게, 또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바른 교훈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건전한 것을 말합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교리들과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병든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바른 생활을 가르칩니다. 바른 교훈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드신 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에 추하여지지 않도록 절제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근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고상하며 존경할 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솔하거나 천박하거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헌신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과 두려움을 불러 일으킬 만큼 뚜렷한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더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바른 교훈을 따르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의 목적과 행동이 더욱더 뚜렷해지게 하시고 지속적인 믿음 성장을 주옵소서.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건립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 (2:11)

하나님의 은혜는 본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다섯 가지 중요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 구원을 가져옵니다. 2)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3)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5) 널리 선포되어야 할 메세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사이의 은혜와 비교가 안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세상에 보내 주신 구세주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들로 하여금 경건치 않음과 세상적 탐욕을 거부하도록 합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것들로써, 기록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순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적 탐욕이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써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근신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십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신다면 그렇게 사시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 기도 /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금년에도 알맞은 비와 햇빛을 주셔서 모든 농사가 풍작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3:7)

본문은 믿는 자의 생활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와 환경은 힘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레데에 있는 디도와 교인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신 때는 네로라는 폭군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생활하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모범을 보여 줄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은 단순히 말과 글로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행동으로 더욱 힘있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선한 생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가치관과 윤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려 우리에게 귀중한 구원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삽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힘든 환경에서라도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힘쓰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힘든 환경에 부닥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귀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이 민족의 양심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ㄹ(3:8)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단에 속한 자들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헬라말에 이단이란 말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단이란 스스로 믿어야 할 대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이라는 가위를 갖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잘라냅니다. 만일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왜곡시키면 그는 이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아멘'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언제나 그와 함께 하는 몇몇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와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격려와 지원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만큼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욱 충성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이 잘 안되어 가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을 향하여 다가올 때에, 믿는 자들간에 사랑의 격려 말 한 마디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후원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도간의 충고와 격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있습니까? 참된 성도로서 말씀 안에서 서로 충고하고 격려하며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믿음의 지체들이 때로 선한 일을 하다가 약해지고 낙심할 때 격려하고 후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6월에도 동행하사 더욱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30 과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씀 / 갈 5:22-26

찬 송 / 169 장

요 점 /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운 나무들인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꼭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최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람은 중생치 못한 자연인도 아니고,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좇아 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결정됩니다. 육체를 좇아 살면 육체의 열매를, 성령을 좇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서로 상반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을 좇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누구나 다 갖는 것이 아니며, 누구나 갖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모든 신자가 다 갖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성경에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홉 가지라고 하였습니다(갈 5:22,23). 이 성령의 열매를 잘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사랑, 희락(기쁨), 화평이 있습니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오래 참음, 자비(친절), 양선(선함)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구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만큼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육체의 일은 크게 열 다섯 가지입니다. 즉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동행할 때에 맺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먼저 죄의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액'을 빨아 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좇아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되 풋열매도 아니고, 썩은 열매도 아닌 온전한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성령을 좇아 생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장성한 성도는 ()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의 신앙생활 나무에 맺어야 되겠는데, 모든 성도들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성도들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
3.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맺게 되는 아홉 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
4. 5월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들, 또한 성령의 열매로 전도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구역원들이 지금 태신자로 작정한 분들을 위해서 꼭 결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제 31 과

교회의 개념과 본질을 바로 압시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말씀 / 딤후 3:14-16

찬 송 / 246 장

요 점 /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라는 말처럼
“교회이면 교회이냐 교회라야 교회이지”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교회를 살펴볼 때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점에서 교회의 개념과 본질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의 개념

흔히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당, 혹은 예배당일 뿐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택된 무리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교회를 ‘카할’(kahal)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불러 모으다’란 말이다. 이것을 총회 혹은 하나님의 회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ekklesia)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즉 '에크' (ek;...로부터)란 단어와 '클레시아' (klesia;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뜻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주님께 나아와 공적으로 그를 고백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인 무리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보편적 교회와 지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전, 혹은 성령의 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딤후 3:15)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진리의 수호자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톨릭에서는 교회를 첫째는 세례를 받은 자, 둘째는 같은 신앙고백을 하는 자, 셋째는 같은 성례에 참여하는 자, 넷째는 지상의 머리인 교황의 통치를 받는 무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정교회는 카톨릭과 거의 같으나 차이점은 가견적 교회에 강조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카톨릭을 참 교회로 인정치 않습니다.

다음은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개신교는 교회의 본질을 외면적 조직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의 회중, 즉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화되어 인치심을 받은 신자들의 회중을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의 구별은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혹은 유형교회와 무형교

회로 나눕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다른 것은 전투적 교회나 유형교회에는 불택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하나님으로 부터 부름을 받은 선택된 무리들의 모임)

2. 교회는 ()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교회는 ()의 수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구역은 과연 ()가 충만합니까?

3.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입니다. 살아 있는 몸은 움직이며 활동을 합니다. 우리의 활동은 바로 전도입니다. 지금 나는 태신자를 잉태하고 있으며, 점점 태신자를 향한 기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며 관심을 표시해봅시다.

제 32 과

교회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말씀 / 엡 1:15-23

찬송 / 245장

요점 /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며,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에 대해 관심이 많은 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의 교회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서 “교회가 개혁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또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가져야 할까요?

한 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며,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다섯 가지 속성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교회는 통일성을 가집니다

보편적 교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지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또 교회의 교리나 예배의 식이나 행정조직 등에서도 통일성을 가집니다.

둘째, 교회는 거룩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회는 구습을 좇지 않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좇는 면에서 거룩합니다.

또한 교회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비록 종파가 다르고, 지역적으로도 외형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시공을 초월한 보편성을 가집니다.

셋째, 교회는 사도성을 가집니다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주님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사도성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에 나타난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가르치는 한 교회는 사도성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은 카톨릭이 형식적인 사도성을 주장하는데 반하여 개신교는 내용상의 사도성을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교회는 제한된 의미에서 무오류성을 가집니다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무오류성에 근거하여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에 나타난 모든 교회는 오류가 없지 않습니다. 교회의 무오류성은 조건과 제한적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무오류성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가르침에 근거하고 순종할 때에 한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다섯째, 교회는 생명성을 가집니다

교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생명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그의 복음을 전파하여 믿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교회가 따를 속성은 ()의 속성입니다
2. 교회의 다섯 가지 속성은 무엇입니까?(통일성, 거룩성, 사도성, 제한된 무오류성, 생명성)
3. 사도성은 어떤 진리를 가리킵니까?(네글자)
4.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움직이고 활동을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특별새벽기도회가 은혜 충만, 응답 충만한 새벽기도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제 33 과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말 씀 / 요이 1:4-10

찬 송 / 313 장

요 점 /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든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표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파도 다르고, 교리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거짓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표식은 없을까요? 사실 유형교회는 어떤 교회이든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표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된 교회임을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식을 정리해봅시다.

첫째, 참된 교회는 말씀을 올바로 전파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물론 교파마다 여러 가지 다른 독특한 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냐, 혹은 성경을 변질시키고 있지

는 않는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졌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옳게 분변한다”는 말은 말씀을 똑바로 자른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둘째, 참된 교회는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일곱 가지 성례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두 가지만 시행하신 것을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자격을 갖춘 목사에 의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합당한 대상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습니다. 본래는 신앙고백을 하면 언제든지 바로 세례를 줄 수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좀더 책임있게 하기 위해서 학습이란 과정을 두고 실시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관습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성찬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과 눈으로 보는 말씀으로 구별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일년에 두 번,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실시하나 이것은 잘못된 관례입니다. 과거에 성례식을 집례할 선교사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실시했던 것이지 성경에 일년에 두 번만 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에서처럼 매주 하는 것도 문제는 없지 않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충현교회에서는 일년에 네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참된 교회는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권징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단과 죄악과 부단히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도덕적, 신령적 순결을 위해서 반드시 권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다른 교회에서 그 날로 집사로 임명하는 등의 변칙이 많아 권징을 바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징은 권면이나 수찬정지나 출교 등 다양합니다. 어쨌든 이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참된 교회의 첫번째 표시는 무엇입니까?
2. 참된 교회의 두번째 표시는 성례인데, 성례에는 ()과 ()이 있습니다
3. 참된 교회의 세번째 표시는 권징입니다. 왜 권징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의 () 순결을 위해서
4. 이단들이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열심을 가지고 태신자 갖기와 낳기 운동을 벌여야 되겠습니까.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 이
성경봉독	사 회 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 이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